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체제 사실상 붕괴... 대통령 권력 강화 비판 속 내전 위기



남수단에서 정부와 야권 간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한 평화협정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나라가 다시 전면 내전 위기로 치달고 있다. 살바 키르 대통령이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보다, 이를 반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 인도주의 매체 ‘더 뉴 휴머니테리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남수단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재확산하며 수십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특히 종글레이 주에서는 정부군(SSPDF)이 반정부 세력과의 교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격과 방화, 살해, 납치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종글레이 주민 존 디에는 정부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숲으로 피신했지만, 집 근처에 폭탄이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코보로 피란했지만, 그곳 역시 공격 위협에 놓이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했다. 생존자들은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교회와 실향민 수용지를 떠돌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이번 폭력이 과거 내전 당시보다 더 잔혹하다고 증언한다.

남수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내전을 끝내기 위해 2020년 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반군 병력을 국가군으로 통합하는 핵심 조치는 자금 부족과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됐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살바 키르 대통령이 야권 내부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우위를 강화해 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황은 야권 수단인민해방운동-반대파(SPLM-IO) 지도자이자 제1부통령인 리엑 마차르가 체포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에서 마차르 구금이 정부와 야권이 권력을 나눠 갖기로 한 체제를 무너뜨리고, 지난 10년간 볼 수 없던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과 무력 충돌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군이 공습 과정에서 소이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민간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실향민 수도 크게 늘어 약 3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구호단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반정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을 숙여 밖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는 보고도 나오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충돌이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민족-공동체 간 적대와 결합되며 사회 전반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 평화협정은 여전히 전면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틀이지만, 동시에 권력 경쟁과 무장세력 유지를 부추기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선거 역시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수단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14,18)

하나님, 내전과 부족 간의 학살, 거듭되는 평화협정의 붕괴로 신음하는 남수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죽이고 평화협정조차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용하는 탐욕적인 존재의 실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주십시오. 십자가로 원수 된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셔서 오랜 증오와 두려움의 악순환 가운데 있는 남수단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백성을 그 날을 소망하는 예수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멕시코시티, 1-2월 강력 살인 104건… 한인 상권·외국인 거주지서도 사건 발생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올해 1-2월 개인을 겨냥한 무장 공격이 잇따르며 104건의 강력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을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 국가 치안 시스템 사무국 자료에 따르면, 범행 수단은 총기 사용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물건이 13건, 흉기가 12건, 미분류가 1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이스타팔라파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구스타보 에이 마데로가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한인 상점밀집 지역과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도 각각 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마르셀라 피게로아 국가공공보안시스템 사무총장은 27일 국가 실종자 명부 등록 인원이 13만 2,534명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중 4만 308명은 행정 기록상 생존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4만 6,724명은 데이터가 부족해 수색이 어려운 상태로 분류됐고, 4만 3,128명은 생존 신호가 없어 집중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마약 카르텔이 범죄 은폐 수단으로 '실종'을 악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한1서 3:8-9)

하나님, 강력 살인 사건이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멕시코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멕시코의 영혼들의 심령에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을 꾸짖으사 죄의 자리에서 떠나 더 이상 마귀에 속임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이미 사탄의 일을 멸하신 십자가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여 주사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화평이 가득한 땅 되게 하옵소서.

▲ 한국, 대전퀴어행사 4월 25일 개최… 과거 반대 목소리

이달 25일 제3회 대전퀴어문화축제 행사가 열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5일 제3회 대전퀴어문화축제 '사랑이슈-사랑, 볼륨 최대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 퀴어행사를 둘러싸고 과거에도 지역사회 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2024년에 열렸던 대전 퀴어 행사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은 당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중 앞에서 퀴어행사가 열리면 상당한 시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FIRST Korea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퀴어행사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시민연대 외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행사 개최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에 개최된 대전 퀴어행사에서도 역시 퀴어행사 당일 개최된 '거룩한방파제 건강한가정대전시민대회'에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등을 정당화하는 퀴어 행사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협한다"며 "최근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폭력 사건들과 마약 관련 언론 보도는 이러한 교육과 문화의 부작용이다. 대전을 범죄 도시로 만드는 퀴어행사를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브리서 12:13-14)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이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퀴어행사로 이 땅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더럽히려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앞에 기도로 일어나 생명의 길을 만들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죄에 종 노릇 하는 자들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국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거룩함과 화평함의 옷 입을 예수교회로 일어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문이 열리고 있다”… 정권 붕괴 속 이란에 수백만 권 성경 반입 준비



미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란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란의 문이 복음에 열리는 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고 기도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CBN이 최근 전했다.

현재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라에 자유를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교단체 비전 비욘드 보더스(Vision Beyond Borders)의 패트릭 클라인(Patrick Klein) 대표는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신자들은 여전히 모여 기도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가능하면 집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성경 반입 사역팀과 함께 이란 국경과 가까운 아르메니아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클라인은 “매일 약 1,000대의 유조차가 국경을 넘어 서유럽으로 석유를 운반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국경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란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했다”고 설명했다.

동유럽선교회(Eastern European Mission)의 더크 스미스(Dirk Smith) 부대표는 “문이 열리게 되면 그것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미스의 팀은 페르시아어로 번역된 어린이·청소년용 성경과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대량으로 이란에 보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내전이나 반군 활동으로 인해 이란이 복음 전파에 지나치게 위험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말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성경 어디에서 안전을 위한 기도를 찾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방식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며, 마치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당시 소련 붕괴와 함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며 수십만 권의 성경이 배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라인 대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이란 국민이 자유롭게 성경을 소유하고 읽을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성경을 받은 한 이란 남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는 ‘이제 나는 진리를 직접 갖게 되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시편 119:171-173)

하나님, 전쟁중인 이란을 위해 중보하며 주의 일을 꿈꾸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황은 위험과 어려움이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그 땅에 고통이 그치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이란의 영혼을 살리고 진리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사 이 생명의 말씀이 이란 전역에 배포되게 하시고 그 땅에 새 일을 행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이란의 영혼들이 주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인도, 반기독교 적대 행위 증가... 지난해 747건 기록

인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적대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도복음주의연합 산하 종교자유위원회(EFIRLC)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확인된 기독교인 대상 폭력·협박·차별 사건은 747건으로, 2024년(640건)보다 늘었고 2014년(147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다. 총 915건 이상의 신고 중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출처로 검증된 사례만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위협·괴롭힘(204건)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112건), 예배 방해(110건)가 뒤를 이었다. 체포 86건과 허위 고소 98건 등 법적 압박도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반개종법과 관련됐다. 지역별로는 우타르프라데시(217건)와 차티스가르(177건)에 사건이 집중됐다. 보고서는 반개종법의 오용이 박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도 모임이 불법 개종 혐의로 고발되거나, 폭행·추방·장례 방해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종교 자유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시편 9:13-14)

하나님, 반개종법을 근거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 해마다 늘어나는 인도를 돌아보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고 완전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인도의 교회를 붙들어 주사, 저들이 주를 향한 찬송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위협과 괴롭힘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인도 땅 가운데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도의 영혼들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선교완성을 이루어 주소서.

▲ 나이지리아, 마코코 빈민가 철거로 1만 명 강제로 쫓겨나...

나이지리아 마코코 빈민가에서 진행된 대규모 철거로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시작된 철거 작업으로 3,00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고 최소 1만 명 이상이 강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철거는 라고스 주 정부가 전력선 인근 불법 건축물 정비와 도시 개발을 명분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사전 통보와 보상, 대체 주거 제공 없이 이뤄진 강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수상 가옥 잔해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는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주민들을 해산시키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급속한 도시 개발 과정에서 빈곤층 보호 장치가 미흡한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시편 90:1-2)

하나님, 빈민가 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을 돌아보아 주사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이때에 눈을 들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대대에 거처가 되어 주시고 이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보호조치 없이 강제적으로 이 일을 시행한 위정자들의 마음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사 백성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폭행 피해 후 하반신 마비 20대 스페인 여성, 법적 공방 끝 안락사



성폭행 피해와 투신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겪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온 25세 스페인 여성이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의료진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출신의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가 이날 병원에서 안락사로 사망했다.

노엘리아는 2022년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같은 해 10월 건물 5층에서 투신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후 만성 신경통과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2024년 안락사를 공식 신청했다. 카탈루냐 평가위원회는 이를 승인했으나,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그녀의 부친이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스페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거쳐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에서 사법기관들은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 노엘리아는 생전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으며 가족의 행복이 내 삶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말기 환자가 아닌 20대 여성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요 사유로 안락사를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반대 측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한 안락사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 측은 전문가 평가를 거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불법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존엄사’와 ‘죽을 권리’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윤리적·법적 논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해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교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돌봄과 치유 대신 죽음을 선택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브리서 9:27-28)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안락사를 승인한 스페인 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교만함을 엄히 꾸짖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지켜만 봐야했던 노엘리아 부모님의 통탄스러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믿지 않는 스페인의 영혼들을 주의 진리 앞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스페인을 회복하사 주를 경외함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속 이슬람 영향력 확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경제 성장과 함께 이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따르면, 동남아 주요 이슬람 국가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세속화가 아닌 종교적 정체성 강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도는 특히 중산층 확대와 교육 수준 향상이 오히려 종교적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슬람 정당과 종교 기반 정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율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이 증가하고, 종교적 규범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상 전반에 이슬람 가치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종교 현상을 넘어 정치와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본부 종합).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데살로니가전서 5:3,6)

하나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속에 이슬람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개인의 삶이 안정될수록 이슬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땅의 교회를 일깨워 주셔서 이슬람 세력의 확산으로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복음의 장막터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넓게 퍼져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 예멘, 휴전 이후 어린이 1,200명 사상

예멘 내전은 2014년 친이란 반군 후티(Houthi)가 수도 사나를 장악하면서 본격화됐으며,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개입하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이후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가운데 2022년 4월 2일 유엔 중재로 휴전이 체결됐다. 이후 약 1,2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지뢰나 기타 폭발물로 인해 어린이 사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셰이브더칠드런이 1일 밝혔다. 휴전 이후 포격, 총격, 지뢰 및 기타 전쟁 잔류 폭발물로 최소 339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8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셰이브더칠드런이 '민간인 피해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 어린이 사상자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11명이 지뢰와 전쟁 잔해 폭발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지뢰 위험 인식 부족과 노동 활동 등으로 성인보다 3배 이상 폭발물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2022년 4월 2일 체결된 유엔 중재 휴전 이후 전체 민간인 피해는 줄었지만, 아동 폭발물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어린이들은 사고 이후 불안과 공포, 수면 장애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가 자기 백성은 양 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 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시편 78:52-53)

하나님, 휴전 이후에도 위험 속에 있는 예멘의 다음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뢰와 잔해의 폭발이 어린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아 주사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고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우릴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만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속히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만 따르는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